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04

August

8

3 머릿글

권용욱 AG 클리닉 원장

4 월프로그램

8월 프로그램

6 화제의 강연

이현조 前 LG전자 회장

10 커버스토리

이준구 국제10021클럽 총재 / 태권도 세계재단 부의장

14 제24회 밀레니엄 경영자 섬머포럼 특집 - 경영특강1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16 제24회 밀레니엄 경영자 섬머포럼 특집 - 경영특강2

김영세 (주) 이노디자인 사장

18 제24회 밀레니엄 경영자 섬머포럼 특집 - 과학특강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20 제24회 밀레니엄 경영자 섬머포럼 특집 - 정책특강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22 회원&연구원소식

26 리더십이야기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28 건강이야기

편세현 라 크리닉 드 파리 by 타임필 원장

29 발행인편지

30 이시형 칼럼

표지인물 이준구 국제10021클럽 총재 / 태권도 세계재단 부의장

60년 태권도 외길 인생의 이준구 국제10021클럽 총재는 50년 가까운 세월을 미국사회에 태권도 정신을 전파 하는데 보냈다. 그의 이런 노력은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의 교류로 이어졌으며,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가장 성공한 이민자로 선정되었고 워싱턴 시가 그를 위해 '준 리의 날' 을 제정할 만큼 미국사회에서 존경 받는 인물로 자리잡았다.

전 세계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 를 일깨워 주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모범국가로 만들기 위해 '100년의 지혜가 깃든 21세의 젊음' 을 모토로 한 '국제10021클럽' 을 발족하고 새로운 꿈을 준비하고 있는 이준구 총재를 만나 세계적인 태권도의 위상과 미국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관련기사10~13면〉

사진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원장



포천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 지금 즉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실버타운 (인천 서구 경서동) 032-584-0245

포천 실버타운의 장점

- ① **쾌적한 자연환경**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자연속의 도심공간으로 서울에서 30분대 진입, 바로 옆 베스타운스키장과 골프장, 광릉 수목원, 온천 등이 3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 ②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실버타운내 양,한방병원인 해동노인 전문병원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로 경기북부지역 최상의 Living & Medical car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③ **협력병원을 통한 종합진료의 연계시스템**
서울대학병원/삼성의료원/인하대학병원/일산백병원 등 한국 최고 병원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www.haedongsilver.com

■ 인천실버타운 ■ 해동노인전문병원 ■ 포천실버타운 ■ 포천노인전문병원

부대시설

- ① 남·여사우나, 영화감상실, 오락실, 헬스클럽, 산책로, 종교실(교회당) 및 셔틀버스 운행

시설개요

- ①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하리 314-8
- ② 대 지 : 11,000 여평(임야포함)
- ③ 연건평 : 2,100 평(지하 1층, 지상 5층)

입주안내

평형	입주보증금	생활비	객실수
11평	5,000만원	60만원	42
16평	7,000만원	60만원	6
21평	9,000만원	60만원	25

* 재건축(근제단) 예정됨

인사말씀

조복의 신하에 태양이 가득합니다.
그동안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이제 인천실버타운은 그 임무와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천혜의 자연환경 속 노인 전문병원시설을 갖춘 '포천실버타운'을 인수하여 주거와 요양, 의료 서비스가 아우러진 실버타운으로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인천·포천 어느 곳이라도 입주 가능합니다.

해동재단 임직원 일동

회 장	장한기	행정원장	김건성
대표이사	장원찬	의무국장	한원식
임대사·재무	정민재	간호부장	김만자
병원장	안준재	관리원장	김경호
한방병원장	김종환	상담실장	이신길
상무이사		약제실장	송상홍

해동 포천실버타운

1577-0245
031-533-0056
상담 직통 032-584-2016



사회복지법인

노년의 醫食住를...

해 동 재 단

찾아오시는 길



노령화 시대의 웰빙건강법

건강은 자산, 젊음은 경쟁력이다



21세기 들어 건강의 개념이 크게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적의 상태에 있을 때 건강하다고 말한다. 질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피로가 계속되거나 활력이 줄어들어 일도 사회생활도 원활하지 못하다면 건강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최근 들어 사람들 입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웰빙(Well Being)이라는 말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잘 먹고) 잘 살기'이다.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 웰빙족의 특징을 설명할 때 나오는 말이 그들은 유기농 음식을 먹고 운동과 명상 그리고 스파(spa)를 자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음식을 먹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잘 사는' 즉 '웰빙'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조기 검진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향상되면 질병치료에 들어가는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줄고 결과적으로 국민 생산성 확대로 이어지므로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개인적 관점에서도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돈을 저축하듯이 젊어서부터 건강에 투자하면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각종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질병이 없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건강 증진과 젊음 유지를 위해 시간적, 금전적 투자를 하여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질병이 발생한 후 맞게 되는 삶의 질적 저하와 엄청난 치료비 지출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뜻이다. 소위 '건강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테크와 같은 개념으로 '헬스테크'라고 부르기도 한다.



헬스테크란 이렇듯 건강을 중요한 자산의 하나로 생각하고 건강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개념

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조금 손해지만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므로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던 것이 과거 건강에 대한 투자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상의 건강상태를 이룩하고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자산이며 금전적으로도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1년에 1억원을 벌던 사람이 1000만원을 투자하여 최상의 건강상태와 젊음을 유지함으로써 사업이 더 잘되어 1억 2천만원을 번다면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을 지켜서 좋은 것은 물론이고 금전적으로도 1000만원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우리 사회의 변화상도 '건강은 자산, 젊음은 경쟁력'이라는 생각의 또 다른 배경이 된다. 지난 2000년에 이미 노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어 2016년을 고비로 생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사회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노인들도 일을 해야 한다. 조기 퇴직이 장려되는 지금에야 실감이 덜하겠지만 10~20년 후에는 노인들도 경제 활동에 참가해야 할 상황이 오기 쉽다는 얘기다. 따라서 젊은이 못지 않은 체력과 활력으로 노년기 경제 활동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화방지의학에서는 나쁜 생활습관, 호르몬의 불균형, 활성산소 등을 노화와 질병의 주범으로 꼽는다. 따라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려면 흡연, 과음, 과식 등의 나쁜 생활습관을 버리고 절제되고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요법,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호르몬 균형요법, 태만주사요법 등 현대의학의 성과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이용한다면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음과 건강에 투자하여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자! **人間**

권용욱 AG클리닉 원장

1987년 서울대 의과대 졸업 / 서울대 의학박사 / 재활의학과 전문의 / '95~02 동국대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및 동국대 의과대 재활의학과 주임교수 / 前 권용욱노방클리닉 원장 / 美 노화방지의학회 정회원 / 서울대 의과대 초빙교수 / 현 노화방지 전문클리닉 AG클리닉 원장



푸틴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경제성장과 한·러경제협력의 새 과제

1362회 8월 5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테이무라스 라미슈빌리 주한 러시아 대사

러시아의 경제는 2000년부터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푸틴정권 등장 이후 경제개혁과 세계개혁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 등 내부요인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외부요인이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내며,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신흥시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당시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올해 1/4분기에만 834억 달러에 이르며, 원유 생산량에서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국가로 등극했다. 또한 석유 수출 면에서도 지난 1월 세계 2위로 뛰어올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호황이 계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연방 수출액은 10억 6,39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나 급성장했다. 더욱이 오는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예정돼 있어 현지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테이무라스 라미슈빌리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청하여 푸틴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의 배경과 한·러경제협력의 새 과제에 대해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본 연구원은 1998년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구소련 정부의 초청을 받아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등을 방문, 민간차원의 교류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한·러친선협회를 재발족하고 8월 10일~12일까지 '한·러 합동 공연인 오페라 이순신'을 준비해 한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관계모색을 꾀하고 있다. (한·러친선협회, 오페라 이순신 세계화추진위원회 공동주최 / 주 러시아대사관, 문광부, 민간개발연구원 후원)

- ▲ 모스크바대 국제학과, 국제법학과 졸업(1979)
- ▲ 구 소련 중앙정부 외교부 근무(1979-81)
- ▲ 외교관 근무시작(1981)
- ▲ 구 소련 중앙정부 외교부 조약국 근무(1981-83)
- ▲ 구 소련 중앙정부 외교부 3등, 2등, 1등 서기관, 국제 인도주의 협력과 인권 국장(1987-91)
- ▲ 국제인권협력과 인권부장, UN총회 제3위원회 러시아 대표, UN인권위원회 러시아 대표단 부단장(1992-99)
- ▲ 소수민족 차별방지 및 보호 분과위원회 위원, 유럽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유럽 이민위원회 러시아 대표(1999-01)
- ▲ 駐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대사(2001-현)

8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 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경쟁력시대의 기술개발과 CEO의 리더십 문제

1363회 8월 1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손 욱 삼성인력개발원 원장

세계경제의 한 가운데에는 항상 기술의 변화가 앞서 가고 있다. 글로벌 경제로 들어서면서 소위 복잡계 경영, 복잡계 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변화의 관점에서 경쟁력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기술개발과 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변화가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기술개발이 자리하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이를 총괄하는 CEO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21세기는 전문가의 경쟁시대로 전문영역 연구, 인적 네트워크, 경험이라는 3요소를 갖추고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예전 조직의 구조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흐름에 따라 적응을 해나가면 생존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에 대처하면서 여러 조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능을 지녀야만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모방에 의한 산업발전으로 경쟁력을 키워온 측면이 강하며 이로 인해 기술개발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제는 기술혁신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가치를 부여하고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CEO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공계출신 스타 CEO로 2003년 청소년들에게 'ढ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으로 선정되기도 한 손 욱 삼성인력개발원 원장을 모시고 초경쟁력시대의 기술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CEO의 리더십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1967)
- ▲ 삼성전자 부장(1975)
- ▲ 삼성전자 기획조정실 실장(1983)
- ▲ 삼성전기 종합연구소 소장(1986)
- ▲ 삼성전기 기술본부장 상무이사(1988)
- ▲ 삼성 회장 비서실 경영1팀 전무이사(1990-93)
- ▲ 삼성전자 기획실 전무이사(1993)
- ▲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장 부사장(1993-95)
- ▲ 삼성전관 대표이사 사장(1997-98)
- ▲ 한국전지연구조합 초대회장(1997-99)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2003-현)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위원(2004-현)
- 〈상훈〉 대한민국과학상 석탑산업훈장, IR52장영실상 3회 수상,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외



도요타의 무분규 40년 경영신화와 렉서스, 하이브리드카 이야기

1364회 8월 19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오기소 이치로 한국도요타자동차 사장

지난 1월 도요타 자동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사간 임금동결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포드를 제치고 세계 2위의 자동차 메이커로 부상하는 등 상승장구하고 있는 도요타의 위상으로 볼 때 이러한 소식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도요타는 40년 가까이 쟁의를 겪지 않은 사업장이기도 하다. 이런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수십년에 걸친 노·사 양측의 공동노력이 깃들어 있다.

1949년 심각한 재정난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도요타는 25%의 인원감축을 단행했고, 노조가 이에 맞서 75일간 파업투쟁을 벌였으나 결국 노조가 회사측의 결정을 수용하고 당시 사장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사태가 마무리 됐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67년 '상호신뢰하고 존중하며 생산성 향상을 통해 회사의 번영과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했고 그 뒤 노사 양측은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신뢰를 쌓아왔다.

도요타는 최고경영진과 노사 간부간의 대화를 포함해 여러 단에서 대화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사실상 60세까지 종신고용이 보장되며 정년이 된 근로자 중 100명 정도는 63세까지 재고용이 되기도 한다. 노사간의 끊임없는 대화, 최고수준의 임금과 고용보장이 40년 무분규 신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차세대 자동차로 평가받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카 개발을 71년부터 착수하여 현재 시장의 90%를 석권하고 있으며, 미래 자동차산업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도요타의 오기소 이치로 사장을 초빙하여 도요타의 무분규 40년의 경영신화와 '친환경', '연료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하이브리드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日 게이오대 경제학과 졸업(1977)
- ▲ 도요타 인사, 북미지역 상용차 마케팅 담당(1977)
- ▲ 도요타 본사 북미지역 마케팅 담당 매니저(1992)
- ▲ 도요타 본사 남아프리카 마케팅 담당 이사(1997)
- ▲ 도요타 본사 남아프리카 지역 마케팅 그룹 매니저(2001)
- ▲ 도요타 프로젝트담당 부장(2001)
- ▲ 한국도요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2003-현)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과 웰빙시대의 건강관리

1365회 8월 26일 롯데호텔(소공동) 37층 가네트룸
김 화 중 대통령 보건복지특보 / 前 보건복지부 장관

출발 2년째를 맞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목표는 보건의료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동시에 국내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화 추구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후 1년이 국내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을 구상하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세계시장 공략의 방안 모색과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복지의 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할 때이다.

국내 수요를 생각하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인력이 이미 넘쳐나고 있지만 세계 60억 인구를 놓고 보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국내 국가고시 수준을 끌어올리고 선진국과 교류를 강화하는 등 보건인력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활로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독일 등 복지선진국과 다양한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선진 시스템을 국내에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복지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령화사회의 최후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들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미 드러난 문제점은 반드시 고쳐 국민들 사이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도 필요할 때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제임 당시 특정 이해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과 조화를 바탕으로 보육업무 이관, 보건의료 단체간의 갈등중재 등 현안과제를 무난히 처리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김화중 대통령 보건복지특보를 초빙하여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웰빙시대의 건강관리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서울대 간호학과 졸업(1967)
- ▲ 美 컬럼비아대 간호교육학 석사(1980)
- ▲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박사(1984)
- ▲ 서울대병원 간호사, 수간호사(1967-69)
-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1971-2000)
- ▲ 산업간호학회 초대회장(1991-92)
- ▲ 가정간호학회 초대회장(1993-94)
- ▲ 대한간호협회 회장(1998-02)
- ▲ 민주당 총재특보(2000)
- ▲ 제16대 민주당 국회의원(2000-03)
- ▲ 제42대 보건복지부 장관(2003-04)
- 〈저서〉 지역사회간호학, 학교보건과 간호, 산업간호학, 대학생의 건강관리, 건강한 부부관계를 엮는 작은 지혜 외



철학에 기초한 경영 기본에 충실한 경영

이 현 조 前 LG 전자 회장

제1357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2004년 6월 24일 목요일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나는 1947년에 럭키화학에 입사해서 1998년 1월에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살아오면서 경영자의 오비(奧秘)로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나는 최근에 경영자로서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참회를 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다. 만일 내가 다시 젊은 경영자로 태어난다면 뭔가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평생을 경영자 생활을 해온 내가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1997년에 있었던 IMF와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사내에서도 이메일의 사용이 증가한 때문이다.

지금의 LG는 처음에 기업문화가 제조업 중심이었다. 내가 평생을 훈련받으면서 일한 것은 뭔가 손에 잡히는 물건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이었다. 1997년에 국제금융파동을 겪어 보니 손에 잡히는 물건만을 생산하고 판매해서는 경제가 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또 금융의 위기 속에서 제조업 분야를 아무리 성실하게 해봐도 기업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충격을 받았다.

사내 의사소통, 우산모양에서 그물형태로 변해 경영자의 리더십도 달라져

그 전까지 나는 사람과 사람이 일대일로 만나 경영리더십을 행사하는 조직에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사내에서 의사소통의 체계가 사장을 기점으로 우산모양으로 내려오는데 이메일이 나오고 나서는 사원이 직접 사장에게 의사를 전달 할 수도 있고, 사장이 사원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동시에 의사소통의 과정이 그물 모양의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의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경영자의 리더십의 행사도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은퇴 할 무렵에 젊은 임원들에게 강의를 하는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한 말은 "여러분의 선배에게 하나도 배우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저 선배와 같이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저 선배가 실패한 것을 내가 따라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공부하라고 했다. IMF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 때는 경영자로서 일선에서 활약했던 자체가 마치 죄인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 나 자신이 자신감을 많이 상실했다. 따지고 보면 그러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좌절감을 느꼈던 것이 기업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다.

1947년에 입사해서 불과 1년 반 사이에 나는 판매과장이 되었다. 당시 4.19가 일어났었는데 라디오도 별로 없었고, 신문도 많이 보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보전달이 늦었던 시기였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여기서 홀라후프나 팔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 철학과를 나오면 중학교 선생님을 하거나 대부분 기자를 했다. 기자하는 친구에게 나도 기자시험을 보겠다고 하자 무슨 직업이든 간에 고충은 있겠 마련이라면서 그래도 나는 판매과장까지 올라갔는데 무엇 때문에 이제 와서 직업을 바꾸려하느냐고 했다.

불과 몇 년 후에 5.16군사 혁명이 일어나서 대기업들이 전부 부정

축재자로 처벌을 받았다. 부정축재자금을 정부에서 환수하게 되었는데 막상 돈을 받고 보니 그것으로 산업을 일으킬 방법과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정축재자금을 돈으로 낼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원하는 공장을 짓도록 했다. 력키에 해당된 공장은 전선공장이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전력증강 목표가 100만KW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전력은 40~50만KW도 못되었을 때였다. 이것이 100만KW로 높아지면 전선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전선공장을 지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때까지 플라스틱, 치약, 칫솔, 비누만을 만들던 력키화학이 갑자기 전선공장을 짓게 되었다.

나는 처음에 정관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안양의 문전옥답인 넓은 땅에 가을에 추수하기를 기다렸다가 공장을 지었다. 나는 총무부장 겸 건설본부장이 되어서 안양의 금성전선(LG전선)에서 공장의 건설을 감독하게 되었다. 해방 후에 기업인들을 욕하는 말로 '모리배'라는 말이 있었는데 '내가 모리배의 앞잡이가 되어서 부정축재한 돈으로 공장을 짓는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4.19때와는 또 다른 생각이었다. 모리배의 앞잡이를 하기 싫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번에도 친구들의 만류로 직업을 바꾸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만, 주저앉아서 하면서도 자신의 정당화는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설령 모리배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을 할지언정 그 부정축재한 돈을 유용하게 쓰고, 모든 국민들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고, 국가재건에 도움이 된다면 나름대로는 한 몫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나는 자기 자신에게 자꾸만 교육을 시켰다.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경영자가 되기 위해 노력, 자신감도 생겨

처음에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생활에 자꾸만 회의를 느끼다가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존재의 이유를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위선적으로 자기 정당화가 될 때도 있지만 자신의 몸가짐을 바로 잡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그런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차츰차츰 내 일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1965년 처음으로 임원이 되었고, 일본과 우리가 국교정상화가 되었을 때 바로 동경에 사무소를 열었다. 사무소 소장으로서 동경생활도 해보고, 전시중인 사이 공에 시멘트를 팔기 위해서 입찰도 해보고 미국, 사우디 등 우리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발전하는 폭이 넓어짐에 따라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안목도 넓어지고,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많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1996년에 인화원 회장 겸 원장을 하면서 후진들의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고 경영자가 가져야 될 소양, 자질, 리더십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고 젊은 경영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미국이나 구라파



등의 훌륭한 석학들을 불러서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때 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영자의 리더십이었다. 이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1997년 정년퇴직 직전에 IMF를 만나니까 좌절감이 굉장히 컸던 것이다. 그러한 파동을 겪으면서도 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생각은 별로 없었다. 다만 제조업 중심에서 경영자로서의 안목이나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었다. 마치 증권에서 돈이나 물건이 없어도 신용거래와 선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기업에 있어서도 기업의 형태가 반드시 직접적인 실물거래의 형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거래의 형태가 있다. 그 신용거래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적인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일원화 되어가고 있는 물결에 대해서 경영자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여태까지 내가 경험한 것 속에서는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가졌던 것이다.

기업 자체의 존재 이유, 경영자로서의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생 살아온 것이 전부 부정되어 가는 느낌마저 드는 것 같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아끼고 살아가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와 보장이 오는 것이라 믿고 살아왔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며, 보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로의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왔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과연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만이 옳은 것인가,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1998년 정년퇴직을 하면서 나는 결혼식과 상례를 제외하고는 절대 넥타이를 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편하게 살면서 완전히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면서도 한평생을 기업의 경영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과연 요즘의 상황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고민스럽다. 우리가 살아온 가운데 잘못된 일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은 그래도 잘해왔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하지 못했을 역할과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나의 체험을 전달해 주고, 생각을 전달하여 용기를 주었으면 한다. 좌절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새로운 정당성을 찾아가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야 할 것이며, 70~80세의 나이를 먹은 사람들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젊은이들에게만 있지는 않다.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오늘날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온 동안에 기업인들이 투명하고 잘해왔다면 이러한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나는 요즘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젊은이들을 만나서 여러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붉은 신호면 선다는 생각 가져야 신뢰 생겨

평소에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자하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붉은 신호면 선다'이다. 내가 금성(LG)의 사장으로 부임한 직후에 한번은 회사가 발각 뒤집히는 일이 있었다. 미국의 모든 소비자의 건강을 관장하는 기관인 FDA에서 우리 금성사가 수출한 TV를 구미에서 만든 것이건 태국에서 만든 것이건 간에 전부 출하금지를 시켰다. 창고에 있는 것도 그대로 쌓이게 될 뿐더러 기존에 수출된 것도 전부 회수하라는 명령으로 회사가 망하게 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이라는 시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크고 중요한 시장이었다. TV에는 영상이 나오면서 약간의 인체에 해롭다고 느껴지는 전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많이 노출되면 방사선과 같이 인체에 아주 해로운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각 회사들은 TV를 조립할 때마다 나오는 전파의 미세한 양을 측정한다. 이유를 알아보니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그 측정치보다 양이 많아서가 아니다. FDA에서는 1년에 한번씩 각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유해 전파량의 측정을 정확하게 시행하는지를 조사하러 다니는데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을 일일이 직접 검사하지 못하므로 금성사의 공장에 가보니 측정을 하는 사원이 측정방법도 잘 모르고 있으며, 측정기계도 아주 낡았고, 측정한 것을 기록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서의 측정치는 나온다는 것이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하면 처음에는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정을 했는데 아무리 측정을 해도 불량품이 나오질

않아서 나중에는 의례 적당한 숫자만 적게 된 것이다.

마치 처음에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의 붉은 신호가 있으면 멈추어서 있다가 푸른 신호에 길을 건넜는데 나중에 자라면서 붉은 신호에도 차가 없으면 건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차도 마찬가지로 붉은 신호임에도 사람이 없으면 멈추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규칙을 정하면 그것을 서로가 지키는 것에서 서로의 책임과 사회의 약속이 정해지는 것이고, 이러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유해 전파의 수치가 많건 적건 간에 측정을 해서 기록하는 것이 약속된 것이며, 의무인 것이다. 이것이 붉은 신호에서 서고 푸른 신호에서 가는 것이다. 나오는 전파의 양이 적다고 해서 규칙을 무시하고, 측정을 하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회사의 존폐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요즘 우리세상의 여러 면을 보면 얼마나 많이 붉은 신호에서 서지 않고 걸어가는지,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푸른 신호임에도 믿고 지나가다가 다치는지 모르겠다. 물건과 사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붉은 신호에 선다'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옛말에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랴'는 말이 있다. 이것은 빈대를 전부 잡기 위해서는 집을 모두 태우는 수밖에 없는 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므로 결국 어느 정도만 잡은 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기업경영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품의 불량률이 처음에는 10%이던 것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2%까지 떨어지지만 절대 불량률 제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작업의 모든 공정 중에서 사람, 기계,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이다. 개선과 개량만 가지고는 절대 불량률 제로가 되지 않는다. 초가삼간을 태워버리듯이 공정의 시스템을 전부 바꿔버리고, 작업자의 교육을 다시 철저히 시켜 나가야 만이 제로가 가능한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는 기본에 충실하다는 얘기이고, 경영자의 집념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눈 앞 이익보다 '정도경영' 펼쳐야

두 번째 키워드는 '정도에 대한 얘기이다. 1990년대 초·중반에 걸쳐 LG의 경영혁신을 하면서 '정도경영'을 부르짖었다. 정도경영을 하기 위해서 윤리규범을 만들고, 실천규칙을 만들었다. 그 때 경영혁신에 있어서 나는 비교적 선동적인 입장이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장사에는 서툰 사람이라는 평을 주위에서 들었다. 그러한 사람이 정도경영을 외치고 다니니까 주위에서는 정도경영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다고 말들을 했다.

실제로 젊은 과장이나 아랫사람들이 정도경영으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해 오기도 했다. 정도

경영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경영이 아니다. 돈이라는 것은 기술, 자금, 인적자원, 여러 가지 경영역량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정도경영인 것이다.

만일 이익추구에만 머무른다면 일시적으로는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증권시장에서 한때 주가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뒷심이 떨어지게 된다. 한 해 한해의 이익에 정신을 쏟게 되면 훌륭한 회사로 성장하지 못한다. 10~20년 후 회사가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기반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 비록 경영자의 임기가 있어서 2~4년 동안이지만 그 동안에 경영을 잘 해서 다음에 오는 후계자에게도 좋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LG전자도 내가 재임당시보다 퇴임을 하고 난 후에 더 많은 이익을 냈다.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이 경영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미리 그러한 터전과 기반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다.

LG는 노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노경(노동자와 경영자)이라는 말을 쓴다. 한번은 노동조합에서 임금협상을 하는데 한 공장의 작업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이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특별 수당을 주어야한다고 노조에서 제의해 왔다. 나는 월급 좀 더 주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 시키는 사장은 되기 싫다면서 완강하게 거절했다.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한다면 회사에서는 얼마의 비용이 들더라도 작업환경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들에게 임금을 더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 후에 작업환경을 좋게 바꿔주었다. 이러한 태도로 경영을 하니 까 노조에서는 경영자를 믿기 시작했다.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경영이 필요

결손을 내고 있으면서도 마치 당장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가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노사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나는 경영자의 정도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우량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집착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이익을 초월하는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고 추구해 나가야 한다. 정도를 가지 않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는 없다.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경영이 필요한 것이다.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정도를 가는 투명한 경영을 해나간다면 우리경영자의 정당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 정당한 일을 하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간다면 지금의 난국의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人間**



세계에 태권도 혼을 전파하는 그랜드 마스터

이준구 국제10021클럽 총재 / 태권도 세계재단 부의장

“태권도는 철학입니다.”

1956년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태권도의 정신을 미국에 전파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 이준구 국제10021클럽 총재는 미국 사회에서 50년 가까이 태권도 보급에 전념하고 있다.

60년 태권도 외길을 걷고 있는 이 총재는 나아가 전 세계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자 새로운 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 시작이 ‘100년의 지혜가 깃든 21세의 젊음’을 모토로 한 ‘국제10021클럽’이다. 眞, 美, 愛, 知, 德, 體 이념실천운동을 통해 인류의 공존과 공생을 모색하고 인류 공동의 운명체를 만들기 위한 이 모임은 현재 서울에 본부를 두고 먼저 한국을 세계 속의 모범국가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이 총재의 이러한 노력은 미국의 레이건, 부시, 클린턴, 구 소련의 옐친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 의회 상·하원의원 등 정치인들과의 활발한 교류로 이어졌으며, 2000년 미 이민국에 의해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가장 성공한 이민자 200명’에 선정되었고, 워싱턴 시가 2003년 6월 28일을 ‘준 리의 날’로 제정해 개인적인 영광뿐 아니라 이민사 100년을 아우르는 한인들의 영광을 일궈내었다.

그 간의 인생에서 깨달은 ‘삶의 의미’를 강연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간직한 이준구 총재를 만나 전세계에 퍼진 태권도의 위상과 미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그의 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담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사진 :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원장

총재님께서 지난 2002년 3월에 ‘국제10021클럽’을 발족하셨는데요. 먼저 이 모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인류사의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100년의 지혜가 깃든 21세의 젊음’을 모토로 2002년 3월에 결성된 ‘국제10021클럽’은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공존과 공생을 모색하고 인류 공동의 운명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출발하게 되었어요.

스스로는 머리에 지식 知(Knowledge), 마음에는 양심 德(Honesty), 신체에는 건강 體(Strength)이라는 3대 인격을 갖추고 진실한 사회 眞(Truth), 아름다운 사회 美(Beauty), 사랑 愛(Love)이 넘치는 공동체사회 건설을 위한 계몽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제10021클럽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로써 베풀고 물려주는 행복한 삶으로 ‘전세계 인류의 건강과 행복실현’을 위해

이준구 국제10021클럽 총재 / 태권도 세계재단 부의장

1932년 생 / '56년 渡美 / 美 레이건 대통령 체육교육 특별고문 / 美 부시 대통령 체육교육 특별고문 / 美 국회 상·하원 전·현직의원 300여명 지도 / 구 소련 옐친 대통령 정치인후원양성소 체육교육 특별고문 / 현재 준 리 태권도협회 의장, 준 리 재단 의장, 청춘의 샘(주) 창업자 겸 의장, 태권도 세계재단 부의장, 대한민국국회태권도클럽 상임고문, 무하마드 알리, 이소룡 개인지도

세계지도자 교류활동 및 인류공동체 운동,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및 眞, 美, 愛, 知, 德, 體 이념실천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의 본부를 한국에 둬으로써 한국을 세계의 모범국가로 만들고 국제10021클럽 운동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가시고 상당한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언제 미국으로 떠나셨는지요. 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1956년이었습니다. 당시 육군 중위로 복무중이었는데 항공정비 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미국으로 간 목적은 그것뿐이 아니라 태권도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미국을 보고 태권도를 보급시키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13세부터 태권도를 배웠는데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어요. 태권도를 배워서 싸움이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도 태권도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에 머물기 위해 이듬해 제대를 하고 텍사스주립대 토목공학화에 입학했고 이때부터 태권도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무대에 올라 시범을 보일 때는 키도 작은 동양인에게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았죠. 하지만 발차기와 벽돌 깨기 등을 본 학생들은 놀라기 시작했고, 그 일을 계기로 총장의 승낙을 얻어 클럽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총재님은 50년 가까이 미국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전파해 '그랜드 마스터(큰 사범)'으로 불리시는데요. 미국에서 태권도를 전파하던 초기 어려웠던 일이나 보람있었던 일 몇 가지만 소개해주시죠.

지금까지 저는 태권도 외길 6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태권도를 보급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태권도를 전혀 모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신문에 '누가 내게 덤벼(NO BOTHERS ME)'라고 광고를 냈어요. 도전적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1965년에는 제임스 클리블랜드 의원이 거리에서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태권도를 배우면 다시는 봉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속는 셈치고 도장을 찾은 클리블랜드 의원은 이내 태권도에 매료되었고 그때부터 동료의원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국회체육관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지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아무래도 복싱 챔피언인 무하마드 알리와 영화배우 이소룡을 지도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무하마드 알리와 함께 1976년 한국에 왔을 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알리가 저에게 태권도를 배우면서 챔피언이 된 것이거든요.



▶ 영화배우 이소룡에게 무술을 지도하고 있는 이준구 총재

미 의회의장을 비롯한 전 현직 상·하원 의원 300여명에게 태권도를 지도해 넓게는 민간외교관 역할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제자나 스포츠를 통한 외교사절로서의 에피소드 좀 들려주시죠.

공화당에서 탈당하고 상원을 여소야대로 바꿨던 제임스 제퍼즈 상원의원, 지난 미 대선 때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으로서 개표 파동의 주역이었던 캐서린 해리스 의원, 전 하원의장인 보브 리빙스턴 의원 등은 모두 저에게 태권도를 배운 제자들로 워싱턴시에서 제정한 '준 리의 날' 선포식 때 당시 최대 정치 쟁점인 의료보험법안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행사장에 들러 제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그들은 '준 리는 우리에게 절제의 정신을 가르쳐왔다며 '그는 우리의 큰 사범'이라고 저를 칭송해줬습니다. 이는 그들이 태권도의 철학을 이해하고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태권도를 통한 교류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제네바에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마이크 에스피 농무장관이 한국대표단에게 '태권도를 할 줄 아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서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리를 추구하자'고 제안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매듭지었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때 미국을 방문했는데 연설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6개월 전 필리핀의 아키노도 단상에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느냐'고 따져서 성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의 정치인들과 교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복싱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와 발차기 시범을 보이는 이준구 총재

조지 부시 대통령의 체육교육 특별고문, 구 소련 옐친 대통령 '정치인 훈련양성소' 체육교육 특별고문 등으로 활동했는데 그 중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태권도는 한국이 미국에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 부시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었던 이준구 총재



▶ 클린턴 전 대통령과 이준구 총재



▶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과 이준구 총재

총재님은 2000년 미 이민국에 의해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가장 성공한 이민자 200명'에 선정된 데 이어 2003년에는 워싱턴 시가 '준 리의 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한국인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일련의 일들은 제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100년 이민사를 피담으로 일군 한인 모두의 영광입니다. 특히 워싱턴 시가 2003년 6월 28일을 '준 리의 날'로 제정한 것은 준 리 도장이 워싱턴에 문을 연지 40주년이 되는 날이었기에 더욱 영광이었죠. 40년이라는 시간은 미국인들에게 단지 무예를 전하는 기간이 아니라 한국인의 혼과 정신을 미국 사회에 심는 소중한 세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전파된 태권도의 위상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태권도는 단순히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가르치는 무술'입니다. 이러한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미국에 태권도를 보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사회적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태권도의 이미지를 좋게 받아들였고 태권도의 철학을 배우기 위해 열성적이죠. 그리고 저는 태권도를 하면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고안해서 전파했어요. 이는 태권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 무술에 적용하는 장비로써 타 무술인들에게도 태권도가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세계 180여개국의 대사 자녀들이 '준 리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보통 5년 정도 배우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현지에는 도장이 없어서 사범을 보내달라는 부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태권도협회를 소개해줘서 전세계에 태권도가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처음 태권도를 보급했던 워싱턴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각국 대사들을 통해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준 리 도장'은 미국 전역과 러시아에 130여개의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로 세계는 지금 태권도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총재님은 현재 도장을 운영하시는 반면에 활발한 강연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강연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사람들에게 '왜 살아야'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눈의 존재 목적이 보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지만 전체적인 인생의 목적은 잘 모르죠. 제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삶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주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에게는 밥도 필요 없고, 방도 필요 없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기르려면 진심으로 살아야 하고, 진심으로 살면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다우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말을 하면 추해지고, 추해지면 미움받고, 미움 받으면 불행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통해 알려주고 싶습니다.

총재님의 강연주제를 보면 저희 연구원의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라는 슬로건과 무관하지 않는데요.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인간개발'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 한 국제10021클럽의 활동도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깨달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도 인간완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개발은 머리만 좋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덕을 쌓은 후에 머리가 좋아야 해요. 악한 마음에 머리만 좋으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죠. 그래서 양심교육을 먼저 시키고 끝에는 인간완성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인간개발은 知, 德, 體 중 知 한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지와 덕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만 體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로 아이들을 모으고, 태권도를 통해 아이들에게 知, 德, 體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총재님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역사를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이는 비전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미국의 정치철학이 바로 썼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었고, 구 소련의 정치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종교나 사업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간단합니다. 양심이 바로 철학이죠. 양심적으로 정치하고, 종교를 설파하고, 사업하면 정치철학이 되고, 종교철학이 되고, 경영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본능에는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지 나와 있습니다. 선은 행하고 악은 선을 알기 위한 개념으로만 인식되어선 안돼요. 절대 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밝은 곳에 빛을 쏘아봐야 빛의 소중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쏘아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 와서 보니 반미감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우를 보더라도 대중심이나 미디어에 의한 여론으로 인해 감정적인 반미감정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미국이든 어디든 객관적으로 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견해 역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해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관계를 따져보고, 지금까지 세계를 위해 해 온 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으면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어요. 다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강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세계 여러 곳은 제한적으로 다니고 한국에 열심히 들릴 생각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묘산단지를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40만평의 부지를 받아놓았습니다. 그곳에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전세계 무술을 한데 모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국제10021클럽도 들어설 예정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모범국가로 만들자는 것으로 그 전에 우선 제주도를 모범 도시로 만들어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을 세계 속의 모범국가로 만들자는 것은 우연한 기회에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이란 시를 읽고 나서부터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로 시작되는 이 시는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는데, 이 시의 내용만을 봐도 우리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제주 섬머포럼의 강연과 함께 총재님과 연구원의 인연이 더욱 깊어지리라 믿으며 보여주신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재님께서 보시는 저희 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 그리고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인간개발연구원의 참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장 회장님께서 30년간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모습을 듣고는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고 감탄을 했고, 한편으로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장 회장님께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제가 그 동안 터득한 경험들을 결합해 대한민국을 세계의 모범국가로 만들어보자는 제안까지도 했습니다. 이 이상 큰 것은 없다고 봐요.

앞으로도 연구원이 지금까지 걸어온 반석 위에 더욱 더 훌륭한 결과물을 쌓아올리길 바라며, 많은 기회를 통해 연구원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총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네트워크시대의 리더십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이 시발점이 되었지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시대보다 이 시대는 네트워크 시대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어떤 사회의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것도 네트워크에서 형성되는 부가가치이다. 그런 면에서 '다음'은 그런 부가가치를 가장 크게 형성했고 잘 누리는 회사라고 본다.

'네트워크'라는 것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지연, 혈연, 학연 등이 기존에 존재했던 네트워크이다. 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 사람은 여러 가지 기회를 얻었다. 그런 과거의 네트워크는 통신수단과 인터넷,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의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닫힌 네트워크였다. 같은 지역에 있는 몇 사람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독점했으며 더 확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네트워크는 다르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생긴 네트워크는 아주 열려있는 네트워크다. 실제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네트워크에 소속되고 접속되는 사람들의 경우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 이것이 현존하는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시대의 특징

그 특징을 조금 더 분석해보면, 다섯 가지 기능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분산적이다. 여러 곳에 떨어져 있어도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서 연결된다. 두 번째, 병렬적이다.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일들이 벌어져도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된다. 세 번째, 학습기능이 있다. 어떤 한 명의 지도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스템 전체가 공부해나가는 것이 된다. 네 번째, 수평적이다. 한두 명의 스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여러 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평적이다. 다섯 번째, 투명성이 있다. 네트워크시대가 되면서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좀 더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과거의 리더십과 비교해보자. 과거의 리더십은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현존하는 네트워크시대의 리더십은 정보를 독점하기보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의 리더십은 중앙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갔지만 네트워크 시대의 리더십은 네트워크에 접속된 인터넷을 통해 또는 다른 통신수단을 통해 연결되어 분산되어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과거에는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위에 존재하고 조금씩 분산해주는 수직적이고 피라미드적인 구조였지만 이제는 인간의 두뇌처럼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방사형으로 이뤄지고 같이 배우고 학습해나가는 구조이다.

과거에는 리더십 자체가 사실은 불투명성이 전제될 수밖에 없었지만 네트워크 시대의 리더십은 많은 정보로 인해 투명해지고 있다. 네트워크 시대의 리더십은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리더십이고, 네트워크 자체가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서 얼마만큼의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길을 같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네트워크 시대의 하나의 특징은 중앙집중적으로 통제하고 독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런 잡음이 오히려 창의성을 발휘시켜 주는 리더십으로 발전해나간다.

네트워크 경제의 공간성

네트워크시대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변화가 경제 분야이다. 실제로 우리는 경제학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학문'이라고 배운다. 석유가 한정되어 있고,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가 가장 커다란 관심사였다. 그러나 네트워크 경제는 조금 다르다. 실제로 네트워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확장시켜 주는 것



이다. 네트워크는 얼마든지 지표를 넓혀갈 수 있는 것이고, 무한한 공간이 있는 것이다.

자원이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경제는 아주 합리적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체제를 보면 비합리적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보다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거리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거의 완전경제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은 한번의 클릭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완전경쟁이 이뤄지고 그래서 가격도 가장 싼 곳, 가장 믿을 만한 곳을 골라 구매결정을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경제는 기존하고 틀리게 수요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이 일어난다. 보통 공급자가 물건을 어떻게 많이 생산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이제는 수요자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준다. 가장 좋은 예가 아마존, 이베이 등이다. 사람들이 많이 접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해도 2,000만명이 모인 곳에 물건을 팔고 싶은 것이고, 물건을 사고 싶어도 많은 업체들이 입점해있는 곳에서 사고 싶은 것이다. 네트워크에서만 유일하게 가능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경제 자체는 실제로 네트워크 같은 특징지어지는 우리 현실경제의 또 하나의 차원이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회사를 처음 만들고 일을 할 때 기초했던 몇 가지 법칙이 있다. 첫째, 무어의 법칙은 컴퓨터의 속도는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것이다. 1년 반 뒤에 컴퓨터를 사면 지금보다 성능은 2배쯤 좋아져 있을 것이라는 법칙이다. 길더의 법칙은 18개월마다 접속하는 네트워크의 속도가 2배쯤 빨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Metcalfe의 법칙은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

자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명이 접속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가치가 1이라면 10명이 접속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가치는 100배로 늘어난다. 네트워크에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면 그에 따라서 그 가치가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카오의 법칙은 창의성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개체의 다양성의 지수함수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에 똑같은 사람들이 접속되어 있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접속되면 그 창의성은 분명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한다. 그때부터 네트워크에 접속이 된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을 하고, 온라인 게임도 한다. 몇 십만 명이 모여 데모도 한다. 이것도 우리 생활이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억압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지만 이제는 중간에 있는 카페나 커뮤니티나 네트워크가 이들을 모아서 현실세계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인터넷상에서 몇 십만 명이 모여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반대로 우리 현실생활에 돌아와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까지도 이끌어 내는 힘이 되는 것이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이버공간에서 사람들이 노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 우리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세상인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다란 두뇌 역할을 하고, 누군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이 지금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네트워크 때문이다.

다음(多音)은 다양한 소리의 조화

'다음(多音)'은 이런 것을 출발점으로 시작했다. '다음(多音)'은 여러 가지 소리를 조화롭게 내는 역할을 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우리는 다양성이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금은 익숙하겠지만 95년 회사 설립 당시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인 컴퓨터 회사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 컴퓨터는 컴퓨팅하는 기계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커뮤니케이터라는 인식 하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인터넷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네트워크 경제의 핵심이다. 그것을 쓰던 안 쓰던 이 네트워크 세상은 우리 생활의 확장 공간이다. 후시 안 쓸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거기서 보내고 있고, 거기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현상도 이뤄지고 있다. 그 공간에 안 간다면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좁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공간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들여보지 못했던 아주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규칙들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경제체제이다. 그것으로 인해 약간의 혼란도 있고 범죄도 일어나고 복잡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정치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학습되고 안정화되면 분명히 창조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물론 이런 혼란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조직이든 서비스든 안정화되고 학습되면 이런 것들이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네트워크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人間

디자인으로 세계를 제패하다

김영세 (주)이노디자인 사장



(주)이노디자인 의 본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다. 한국에는 '이노디자인 코리아'가 5년 전에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어서 자주 오긴 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을 뵙 수 있다고 해서 들어오게 되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디자인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디자인이라는 말은 '디·자·인'이라고 해도 결국은 'Design'이라는 영어에서 나온 말이 된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생각 그리기'이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회사를 만드는 20년을 지내면서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어느 날 궁금증이 생겼다. 이 말이 뭘까? 처음에는 디자인 옆에 '...'을 찍었다. 이게 뭘까하다가 궁금증이 나서 '?'를 찍었고, 그 다음에는 커다란 '!'를 찍었다. 그래서 디자인이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봤는데 영어 어원이 'Design is making change'였다. 디자인이란 변화를 추구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디자인이라는 것이 변화의 추구라는 프로세스라면 디자인이야말로 영원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히 변화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우리 앞에 와있다는 이야기로 결국 디자인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Design is...

디자인 활동을 하는 내 나름대로 생각한 단어는 어원보다는 'Design is emotional logic'이라고 느꼈다. 인간의 두뇌는 좌뇌, 우뇌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모셔널 한 두뇌, 하나는 로지컬한 두뇌라고 한다. 그래서 수학적인 두뇌, 합리적인, 감성적인 두뇌를 모두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디자인이야말로 그 두 가지를 다 쓰는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감성적인 어필과 이성적이 어필이 50대 50으로 밸런스를 만들었을 때 좋은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는 'Design is loving others'로 디자인이란 남들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이 디자인이구나, 사랑이구나라고 깨우칠 수 있는 계기를 줬던 것은 바로 내 아들이었다. 아들이 16세 때, '어미의 날'에 자기 엄마한테 카드를 하나 선물했는데 바로 쿠폰이었다.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등이 있고 만기를 2~3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히트작은 맨 마지막에 '엄마를 사랑하기'로 만기가 '영원히'였다. 그걸 본 엄마가 눈물까지 흘렸다. 이것은 자기 엄마한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고, 그것이 남을 사랑하기, 그것이 디자인이라는 것을 그 때 깨우쳤다.

그것과 내 전문적인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관되나 하면 내가 디자인하는 상품은 최종 소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자인한다. 모든 것이 소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히트 상품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디자인이란 남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이 'Design is magic'으로 디자인은 예술이 아니라 마술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좋은 상품은 소비자들 사고, 좋지 않은 상품은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을 더 강조해주는 것이다. 마케팅 기법이 이제는 분석과 비교 경쟁우위를 창조해서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 거의 힘들어지고 있다. 결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은 소비자들을 더 감동시킬 수 있는 매력 포인트, 뭘지 모르지만 그냥 좋은 것들이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디자인은 마술이라는 것이다.

Value Innovation by Design

MP3 세계시장 23%를 점유하고 있는 '레인컴'의 '아이리버'라는 브랜드는 좋은 예이다. 그 회사를 만난 것은 불과 3년이 안 된다. 그 회사의 창업자인 양덕준 사장을 만나게 되면서 아이리버라는 기적적인 스토리가 만들



어졌는데 처음 이 분이 나를 찾아와서 디자인을 부탁했을 때는 외상으로 해달라고 했다. 돈은 없지만 기술과 열정으로 이노디자인의 디자인만 얻을 수 있으면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럼 '당신네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연간 80억이라고 했다. 그래서 동맹을 맺게 되었다.

그 후 결과를 말씀드리면 2년 반만에 작년 말, 일 년 대비 3,000억 매출로 30배 이상이 올랐다. 그리고 금년에 5~6,0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디자인이고 이것이 바로 디자인은 마술이라는 것이다. 공장의 설비를 늘리고 개발을 해서 가격을 내리고 하는 경쟁을 백 날 해봤자 매출 30~50배는 불가능 한 것이다.

지금 도표 하나를 소개하는데, 'Value Innovation by Design'이라는 디자인으로 하는 '가치혁신'이라는 도표이다. 두 가지 축을 놓고 도표를 보면 한 쪽은 부가가치로 많은 돈이고, 한 쪽은 별로 부가가치가 없는 쪽이다.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more expected 쪽으로 갈수록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예측이 안 되는, 엉뚱한 쪽이고, less expected 쪽으로 갈수록 그냥 다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more expected 쪽에는 가치가 작다.

그런데 어떠한 엉뚱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없었던 것이 탄생하고 대박이 났던 케이스는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기업들이 쉽다는 이유로

이 속에 다닥다닥 붙어있다는 것이다. 옆에서 하는 회사와 비슷하게 하면 되니까, 모방하면 되니까 이런 것을 열심히 회사들이 만들어왔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년간 이런 히스토리였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프로세스가 바로 more expected 쪽에 있는 기업을 less expected 쪽으로 빼내 가는 일이다. 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리버의 케이스다.

'Value Innovation by Design'이라는 말이 오늘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아이리버 케이스라든가 우리가 디자인한 몇몇 케이스가 히트 상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노디자인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Design First'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상품개발의 첫 번째 단계이다. 옛날에는 디자인이 기업의 상품 기획서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디자이너들이 참여를 하고 전개했지만 이제는 디자이너가 미래에 먼저 가 보고 난 다음 디자이너가 창조한 디자인을 기업들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거쳐서 생산하는 것이다. 재래식 생각은 디자인이라는 것이 기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었고 이노디자인의 프로세스는 디자인이 먼저다 하는 것이다.

이노디자인과 레인컴의 협력은 상당히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는데 우리가 디자인 한 것을 아이리버에서 채택을 하면 아이리버의 기술력이 반겨줬다.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너무나 엉뚱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 '작게 만들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아이리버의 파워라는 것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무조건 만든다 하는 것이 철학이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첫 번째 모델을 제안했을 때 아이리버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경영진들은 디자인이 너무 새로워서 '꼭 하고 싶다', '너무 마음에 든다'는 반응이었고, 개발하는 기술 쪽에서는 저렇게 작게는 만들 수 없다고 해서 의견이 충돌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 그 때 개발의 문제점으로 디자인을 바꿨으면 지금의 성공스토리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마케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진은 디자인에 의한 주문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보니 엔지니어들도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지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이 100만개 이상 판매되면서 회사에 힘이 붙고 지금에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상품기획을 잡아서 그것을 디자이너한테 의뢰할 때는 이미 때는 늦는다. 지금은 시장이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디자이너가 먼저 제안을 하고 기업에서 접목되는 기술을 찾아서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 전에 엉뚱한 자리에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디자인을 삼행시로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순간 당황했지만 바로 답이 나왔다.

디자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다 **人間**

생명공학기술과 국가발전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우리 연구소에서는 전국에 있는 13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184명의 과학자와 의사선생님들을 모시고 세 가지 물음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공부를 하는 중이다. 첫째, 질병의 저항성을 지닌 동물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시대에 바이오 장기 맛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아울러서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여러 가지 난치병들이 세포치료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장기와 세포치료가 좀 더 관심사항이 될 것 같아 이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인공장기 개발의 현주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우리의 장기는 계속 망가지고 있다. 우리 연구팀은 이에 대한 세 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해결대책을 구해보고 있는 중이다. 첫째는 기계식 인공장기를 개발해서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나 약 60년에 걸친 연구역사와 약 100조원의 연구기금이 투입되었건만 아직까지 우리 장기를 대신할 수 있는 내장형 기계식 인공장기는 개발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장기를 사람에게 주는, 'Human to Human'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두 사람의 세포면역타입이 일치되어야 하며, 장기제공자가 뇌사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그 환자 가족들이 장기제공의사를 서면상으로 밝혀줘야 한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기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다는 것이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다른 또 하나의 대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동물의 장기를 사람이 빌려다 쓰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동물 장기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특성이 인간의 그것과 똑같아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침팬지라는 원숭이 종과 돼지이다. 침팬지가 사람과 가장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가장 크게 자랐을

때의 체중이 38kg밖에 되지 않아 성인에게 이식하기에는 너무 작은 장기를 지니고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돼지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72kg의 돼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돼지로부터 심장을 떼어내어 내 왼쪽 가슴을 열고 갖다 붙이면 해부학적으로는 완전히 딱 들어맞는다. 그리고 실로 초창기에 힘차게 박동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약 3분 40초가 지난 다음에는 심장박동이 멈추면서 한쪽으로부터 새끼땀이 쏟아져 나온다. 이는 돼지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초급성 면역거부현상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와 같은 초급성 면역거부현상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돼지에 있는 '알파겔'이라는 특수유전자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돼지의 세포로부터 그 유전자를 빼내는 연구를 계속했다. 이것을 영어로는 'knock-out' 우리말로로는 유전자 제거라고 한다. 이렇게 급성면역거부현상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빼내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LCP, CD59, hDAF라는 세 가지 면역유전자를 이번에는 돼지에게 갖다 끼워준다. 이것은 'knock-i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태어난 복제돼지를 humanized pig, 즉 '인간화 돼지'라고 부른다.

여기 면역체계를 일치시킨 72kg 돼지의 심장을 뽑아 사람에게 갖다 붙이면 면역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 2년 정도 지나고 보면 사람의 가슴속이 온통 돼지 심장으로 꽉 차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72kg의 돼지는 약 2년 정도를 기르게 되면 체중이 350kg이 되는데 인간의 몸에 이식된 장기도 자기가 돼지의 장기라는 origin을 잊지 못해서 계속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돼지가 아무리 크게 성장하더라도 사람의 체중 이상 절대 크지 못하도록 미니화된 인공적 미니돼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또한 돼지가 수천 년 동안 자연환경에 적응되면서 돼지 몸 안에 들어와서 존재하는 바이러스나 세균 중에서는 돼지한테 상재된 균으로서 적응이 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돼지 몸 안에 들어있는 허브바이러스나 상대



균들이 장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옮겨오면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 세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몇 십 년 이상 돼지 몸 안에 균이 하나도 없는 무균상태의 미니돼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2002년 12월 26일 정부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서울대학교 병원 구내에 무균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특수시설을 준공시켜줬다. 이 개관 기념식에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무균 미니돼지를 만드는 연구를 수십 년간 해온 분이 연사로 초청되어 왔는데, 자신이 시카고 의과대학에 130마리의 무균 미니돼지를 가지고 있다며 자기를 대신해서 차세대 신산업으로 이것을 이끌어줄 수 있겠냐는 말을 했었다. 그래서 꼭 그 일을 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항공사에 알아본 결과 돼지새끼 세 마리를 가져오는 데 8천6백만원씩 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 연구진을 보내 임신연령 32일째 되는 태아를 꺼내 열흘동안 배양을 해서 무균의 세포를 만들어서 무균의 드라이아이스가 채워진 튜브 속에 이 세포들을 넣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가져오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전자를 다루는 선생님들을 모두 초청해서 이 세포에 사람의 면역유전자를 넣어서 지난해 9월 서울대학교 병원의 특수시설에서 지구상에서 최초로 태어난 무균의 미니 돼지에 사람의 면역유전자가 들어간 복제 돼지가 탄생된 것이다.

이런 돼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급성 거부반응과 급성혈관성 거부반응이라는 두 단계의 절조망은 이제 건너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세포막의 거부반응과 만성거부반응이라는 마지막 뒷에 걸려서 돼지 장기를 이식 받은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있다. 이 마지막 단계는 특별한 다른 조치가 없이도 면역관용이라는 일종의 의학기술을 적용시키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 마지막 단계마저도 세계에서 최초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면역학자들과 연구를 하고 있으며,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2005년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커머셜규모의 완벽한 연구시설도 탄생될 예정이다. 이제 우리는 실험수준이 아니고 적어도 일년에 몇 만명씩은 사람을 구하고 몇 만부 정도는 해마다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연구팀이 돼지의 심장과 허파를 사람에게 달아주기에 앞서서 개와 원숭이에 달아주는 실험을 하고 있다.

배아 줄기세포 배양의 시사점

사람의 몸은 216가지 종류의 조직과 장기로 구성된 결합품이다. 이들 중에서 대부분의 조직 장기는 한번 망가지면 스스로 생리적 복원기능이 작동되도록 되어 있으나 뇌신경, 척추신경, 심장근육, 철허과 같은 특정 부위는 한번 망가지면 절대 스스로는 재생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를 불치병이라고 부른다. 만약 이런 질병이 있는 분한테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이 기능을 하는 세포를 시험관내에서 만들어서 그곳에 끼워 넣는 것이다. 이를 조직이식 또는 세포치료라고 한다. 이런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줄기세포'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가능성이 점차지게 된 것이다.

이 줄기세포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된 배아가 자궁착상 직전 단계인 배반포에 이르렀을 때 이 내부세포 덩어리라는 새까만 부위의 세포를 떼어 특수배양을 할 경우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의 삼배엽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똑같은 세포로 가게 된다. 이러한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한다. 이 줄기세포가 분열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제를 조금씩 넣어주게 되면 이들이 척추신경으로도 심장근육으로도 골수로도 마음대로 인공분화를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된 세포를 인큐베이터에서 대량으로 배양을 해서 척추신경마비에 걸린 개와 심근경색증이 유도된 돼지, 그리고 백혈병 모델인 생쥐에 주사를 했더니 저 세포들이 마치 조화성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그 곳을 찾아가서 기능이 망가진 세포를 대신해서 정상기능을 되찾더라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람의 난자를 이용해서 직접 실험을 하는 과정을 소개하면, 우선 구멍을 뚫기 위해서 마이크로 니들로 찌르고, 문지르고, 살짝 눌러서 한 1초만에 핵을 빼낸다. 그리고 사람의 세포 하나를 핵이 제거된 난자에 넣어주면 저 세포는 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간 직후에 조금 시간이 경과되면 썩게 된다. 썩기 직전에 전기적인 자극을 가해서 세포융합을 유도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마치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것처럼 그 핵이 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되고 저런 다음에 바로 둘로 빛으로 여덟으로 분할이 된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여기까지밖에 못 왔던 것을 우리는 상실대와 내부세포덩어리가 형성되는 배반포로 유도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고안한 특수한 방법으로 다른 길 다 녹이고 내부세포덩어리만 남겨서 우리가 개발한 특수 배양액에 이를 넣어서 배양을 했더니 이중에서 줄기 세포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세포치료술은 현재의 의료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했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기에 의학자들이 이를 '꿈의 21세기 의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람에게까지 에비던스가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강원래를 다시 한번 무대에 세우고, 영원한 슈퍼맨인 영화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를 다시 날게 하는 것이 나만의 꿈은 아닐 것이다. 人間

장·단기 재정 정책 방향과 운영시스템 혁신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제24회 일러니엄 경영자 제주 섬머포럼
한국 경제성장의 뉴패러다임과 상생화합의 문화창조

제4일 - 7월 24일 (월)

<정책특강 II> 09:20~10:20

장단기 재정정책 방향과 운영시스템 혁신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 방향과
중장기 재정계획 방향을 중심으로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사)한국원격개발연구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한다. 첫째는 경제 동향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둘째는 재정 분야에 있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재정운영의 중점, 그리고 앞으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운영 혁신 방향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전반적으로 경기 부진하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한 상황

먼저 최근 경제 동향에 관한 내용이다. 요즘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수출은 고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가 매우 부진하다. 소비는 작년 2/4분기부터 금년 2/4분기까지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건설 투자는 작년 연간 7% 성장했는데, 금년 1/4분기에는 그 절반으로 푹 떨어져 있다.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축허가면적은 작년의 경우 제작년에 비해 42%가 늘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2% 느는데 그쳤다. 올해 5월 달까지는 작년 5월 달에 비해 20%가량 줄었다. 설비 투자는 IMF를 거치면서 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단지 위안이 되는 것은 국내기계수주가 작년에 마이너스에서 금년 7개월 동안 20% 이상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만, 아직도 담보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 청년실업률은 8%로 높은 수준이다. 신용불량자는 지난달에 마이너스로 감소했지만, 아직도 370만에 달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450조 수준으로 3년 동안 100조 이상 늘어났다. 이런 지표의 어려움보다도 기업가 정신, 우리나라 특유의 역동성이 최근에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일면에 좋아지는 측면도 있다. GDP가 작년 2/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금년도 1/4분기에는 우리의 잠재 성장률 수준

이라고 할 수 있는 5% 수준에 와있다. 실업률은 3% 수준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 수준이다. 이는 1998년도 IMF시절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양호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수출은 7월 15일 현재 금년 들어서 38% 증가했다. 지난 25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 동안 크게 우려했던 중국 경기의 냉각, 국제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 등 대외 약세들도 점차 개선되고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원인을 파악할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경기침체의 원인과 장·단기적 극복방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 여건과 대내 여건에 대해 살펴보면 대외여건으로는 첫째, 금융시장의 연동성 문제이다. 세계가 통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가가 바로 세계의 주가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모든 경제변수가 대외 의존성 변동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경쟁과 개방이다. DDA, FTA를 통해서 농업과 서비스 분야까지 세계에 개방되고 있다. 셋째, 중국 효과이다. 중국의 급부상은 노동집약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분야까지 잠식당하고 있다. 대내여건으로는 우리의 질서와 가치관이 크게 바뀌고 있고, 노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중장기적으로 본 근본적인 대책과 당면 대책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다. 중장기적 대책의 첫 번째는 미래의 산업사회에서 주도를 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뒷받침 해나가고 있다.



다음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 대책과 더불어서 당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도 하반기에 역점 추진해 나갈 것이다. 먼저 중소기업 대책인데 경쟁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현재 39조 수준에서 42조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7월말까지 인력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고, 판로 개척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술력 있는 신제품의 의무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규제 개혁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 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은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재정지출 확대방안과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나라 살림은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올해 재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진한 내수, 즉 소비와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에서 연초부터 노력하고 있다. 연초에 금년도 책정된 예산 기금에서 공기업의 주요한 투자 사업비를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더 어렵다고 판단되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데 매진했다. 금년도 주요 사업비 5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을 세웠고, 또 달성을 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했고, 이를 통해서 경제 심리 회복에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하반기를 앞두고 금년도 상반기보다도 더 많은 4조 5천억원 정도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행 정부가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2조 1천억원을 6월에 집행하였고, 2조 4천억원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 재원은 주로 서민 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국가 경쟁력 강화 부분에 사용될 것이다. 또한 일자리와 직업 훈련에 쓰여질 것이고,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수출 보호 확대, 안전설비 작업환경 개선 예산 등으로 배정되어 있다. 이는 가급적 3/4분기에 조기 집행되도록 집행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기금은 주식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연기금 190조가 채권으로만 가능하여 증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증식은 보험료 3% 절감을 가져온다는 통계도 있다. 기금관리 운영주체가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주식투자 금지를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SOC투자가 계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으므로 민간 투자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금년도 재정운영의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재정을 보다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재정 운영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 재정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총생산에 비해 1%내에서 적자, 흑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균형 재정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국가 채무가 GDP 대비 23~24%에 달하고 있다. 이는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이자,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재정이 맡은 공적자금의 50조로 인한 것이지만, 이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래도 공적자금 채무가 국가 채무로 넘어오는 2006년도를 기점으로 26% 이내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조세 부담율 20% 정도도 앞으로 5년 동안 이 수준에서 크게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 우리 재정 수준은 IMD(국제경영개발원)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쟁률은 세계 35위이지만, 재정 건전성은 세계 2위라고 한다.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재정당국에서의 앞으로의 역할은 재정당국의 장점인 큰 기준과 원칙을 그리고, 분야별 부처별 지출 한도를 정해주어, 각 부처별 우선 순위에 따라 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하여야 한다.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이 필요한가 보다는 그 분야의 성과가 얼마인지를 평가해 보고 투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디지털화에 맞추어서 예산의 요구, 편성, 집행, 결산의 디지털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업비 책정을 닦아가겠다는 것으로 이제는 국민에게 형편없는 서비스로는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조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기업체처럼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나라 살림을 이렇게 고치겠다는 것이 기업인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기업인들은 치열한 지구촌 경쟁 사회에서 세계를 상대로 싸우시면서 성공을 일궈내는데 이러한 것은 곧 일자리 창출이고, 예산 편성에 필요한 세금을 내는 것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좋은 혁신 아이디어는 공공부문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혁신의 자료가 된다. 그렇기에 성공한 기업인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기업인이 되시길 바란다. (人間)

회원소식



• **프랜차이즈전문기업 (주)태창가족**은 지난 7월 24일 오후 2시 성내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사옥 이전행사를 가졌다. 창립 5주년과 맞물린 사옥이전행사는 태창가족 임·직원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서기 사장은 “이번 사옥이전을 통해 (주)태창가족은 올해를 ‘제2의 창업원년의 해’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 **일양약품(대표 유태숙)**은 최근 중국 허베이(河北)성에 위치한 이령약품과 혈액순환 및 심장질환 치료제 통심락(通心絡)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통심락은 전갈, 수질, 선퇴, 오공, 자충 등 동물생약 5종과 작약, 인삼, 용뇌 등 식물생약 3종이 주성분으로 뇌 혈전증 회복기 환자나 흉부압박감, 흉통, 협심증 등 심장질환자에게 효과적인 제품이다. 중국 정부로부터 의약품으로는 유일하게 국가 과학기술 진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태숙 대표는 “생활패턴 및 식생활 변화와 스트레스로 심혈관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통심락이 10월께 국내 시장에 상륙하면 관련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해충방제회사 세스코(회장 전순표)**의 연구원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내남자의 로맨스>가 7월 16일 개봉하였다. 김상경과 김정은 주연의 이 영화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로맨스 드라마로 영화사측은 이 영화의 제작을 위해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세스코의 자문과 협조를 받았으며 영화촬영을 위해 세스코에서는 수천마리의 바퀴벌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7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충정로가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지역조합장과 임·직원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통합농협 2기의 사업운영방향을 밝혔다.

• **법무법인 로고스 김승규 대표변호사는** 7월 28일 제56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 **대성산업(대표 김영대)**은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대성산업은 자사 컴퓨터시스템사업부를 통해 스웨덴 인피니섹이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인 ‘DG/4’를 국내에 공급한다. 인피니섹의 DG/4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허용된 사용자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제품이다.

• **신원헬트공업(회장 이용국)**은 6월 30일 오전 11시 충남 당진군에 소재한 신원헬트 당진 공장에서 공장을 증설 신축하여 준공식을 가졌다.

• **삼성석유화학(사장 허태학)**은 6월 2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가스안전축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 **조천제 한국블랜차드컨설팅그룹(주) 대표**는 2000년을 넘게 이어온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리더십을 제시한 「섬기는 리더 예수」(21세기북스刊)를 지난 7월 1일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에 참석한 회원 전원에게 기증하였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기업은행	강권석 은행장	(8월 1일)
센테일러	우덕성 사장	(8월 1일)
비즈컴	조영상 사장	(8월 1일)
농업법인 조인	한재권 사장	(8월 2일)
우성마리타임(주)	차수웅 회장	(8월 7일)
영우통상(주)	양대길 회장	(8월 14일)
(주)수성	김정배 사장	(8월 15일)
엘칸토그룹	김용운 회장	(8월 15일)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	(8월 15일)
이글코리아	방성석 사장	(8월 20일)

신규회원

김서기 (주)태창가족 대표이사 (법인회원)

- 주 소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1-1
태창타워 8~9층
- 업 종 : 프랜차이즈
- 전 화 : 02-415-6000
- 팩 스 : 02-421-3106
- 주요업종 : 생맥주전문점 "또끼조끼"
치킨바베큐전문점 "군다리치킨"
세계고치요리전문점 "화타"
- 추 천 인 : 고지석 세무회계사무소 회장



이갑수 세계통치권 복음화운동본부 사임회장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2동 124-22
풍원빌딩 5층
- 전 화 : 02-421-6163
- 팩 스 : 02-421-3106
- 추 천 인 :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



사무실이전

• SKC 김수필 대표이사 사장은 7월 26일자로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주소 : 서초구 서초4동 1303-22 교보타워 18층
전화 : 02-533-8911 팩스 : 02-537-2980

• 퍼시스 김영철 회장은 7월 22일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 강남구 청담동 31-28
전화 : 3445-1812 팩스 : 02-549-7912

• 최승부 법무법인 신우 고문(前 법무법인CHL 고문)의 주소가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소 : 강남구 역삼동 649-10 서림빌딩 15층
전화 : 02-501-7361 팩스 : 02-501-7831

• 황석희 고문(前 우리카드 사장)이 법무법인 우현 상임고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주소 : 서울 종로 1-1 교보빌딩 1614호
전화 : 02-501-7361 팩스 : 02-501-7831

• 브링스코리아(대표이사 나길웅)는 6월 12일 본사사옥을 이전하였습니다.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26
전화번호와 팩스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동명인쇄 우창욱 사장의 장남 종하군의 결혼식이 7월 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주)서호 한철웅 회장의 자녀 기연양의 결혼식이 7월 10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명동지사 EPL 수료자 정기 모임 안내

1. "지식경영과 글로벌리더십", 정진호 원장 초청 강연

- 일시 : 2004년 8월 9일(월) 오후 6시30분

- 장소 : LMI 명동지사 교육장

- 강사 : 정진호 원장 / 경쟁력평가원

- 주제 : "지식경영과 글로벌리더십"

2. 8월 정기 등산회 안내

- 가는 곳 : 강화도 마니산

- 가는 일 : 2004년 8월 14일(토)

☞ LMI 교육프로그램 소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EPL)

• 내 용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는 독특한 행동계획 프로세스와 실천 훈련 과정임.

• 기 간

16주간, 주1회 일정요일, 2시간

효과적인 성과 향상 과정 (EPP)

• 내 용

조직생활의 성과향상과 업무에 대한 열정의 증대를 통해 조직 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임.

※ 석세스플래너 포함

• 기 간

9주간, 주1회 일정요일, 3시간

성공하는 자기경영 과정 (EPM)

• 내 용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에 따름으로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과정임.

• 기 간

1일 5시간, 3주 후 3시간 피드백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

(T) 774-3230 (F) 757-3230 (H) www.whynotyou.co.kr

한국엘엠아이(주) (잠실본사)

(T) 2202-8700 (F) 2203-8050 (H) www.lmikorea.com

연구원소식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동우회 제1그룹(회장 유상옥 /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은 7월 26일 오후 7시 남산면옥에서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 이종기업동우회 제2그룹(회장 전순표 / 세스코 회장)은 7월 정기모임을 21일~24일동안 있었던 제24회 제주 밀레니엄 경영자섬머포럼에서 가졌습니다.
- YCF(회장 김상래 / 성도GL 사장)는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6월 29일(화) 가평 에덴스포츠타운에서 수상스포츠 등을 즐기며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 지중해클럽은 7월 21일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정근재 원장님께서 “현대인과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행사소식

- 회원친선의 날 “뱃살을 줄이면 인생이 즐겁다” 행사



인간개발연구원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강좌가 지난 7월 8일과 9일 서울 압구정동 라 꼬리닉 드 파리 by 산클리닉(대표 권성욱 / 회원)에서 열렸다. 노화방지 전문의 김명신 박사의 강의로 시작된 이 날 행사는 장만기 회장 내외를 비롯한 40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개별 건강진단과 체지방 측정, 골다공증 검사 등 회원들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에게는 잭 니콜라우스 워커힐 골프센터의 VIP 초대권과 골프

용품, 노화방지 스킨케어권 등 푸짐한 선물이 증정되었다. 한편 라 꼬리닉 드 파리는 이번 행사에 대한 회원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2191-5566)

- 제24회 밀레니엄경영자 섬머포럼 성황리 개최

본 연구원이 주최한 「2004 밀레니엄 경영자 섬머포럼」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머무시는 동안 불편하셨던 점이 있으셨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올해 말씀해주신 격려와 교훈들을 거울삼아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찾아뵈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24회 밀레니엄 경영자 섬머포럼 단체사진 촬영

• 본 인간개발연구원은 7월 3일부터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소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주소 :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서울체신청B/D 5층

한·러 친선을 위한 합동공연

오페라 이순신

인간개발연구원은 1998년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구 소련 정부의 초청을 받아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등을 방문, 민간차원의 교류에 앞장 선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한·러친선협회'를 재발족하고 8월 10일~12일까지 공연되는 '한·러 합동 공연 오페라 이순신'을 한·러친선협회의 이름으로 주최하고 인간개발연구원이 후원해 한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관계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성곡오페라단(단장 백기현)이 주관하며, 본 연구원 외에도 주한 러시아대사관, 문화관광부, KBS가 공동 후원하고 있어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한 역사적 재발견과 함께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페라 이순신 탄생과정

이순신 장군 순국 400주년(1998)을 기념하기 위하여 탄생한 오페라 이순신은 1997년에 이탈리아 N.Lucolano에 의하여 작곡되어진 후 1998년에 아산 현충사 야외에서 초연되어 1999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도시에서 공연되었다.

이 후 다시 이탈리아 작곡자 G.Mazucca와 N.Samale에 의해 재작곡된 후 2000년 이탈리아 로마(Teatro dell Opera di Roma, Costanzi)와 서울에서 공연되었다. 한편 러시아 작곡자 V.Agafonnikov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오페라 이순신은 2003년 11월 14일 Russia Petersburg Baltic 극장에서 절찬을 받기도 했다.

한편 북핵문제와 6자회담 등 동북아의 흐름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페라 이순신은 무한한 자원을 보유한 러시아와의 우호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양국간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한·러 친선 협회



백기현
성곡오페라단장 / 공주대 음악과 교수

《오페라 이순신 공연안내》

일 시 : 2004년 8월 10일(화)~12일(목)
 오후 8시
장 소 : 한전아트센터(3호선 양재역)
문 의 : 080-485-6933

한국·러시아 합동공연 오페라
이순신

1998년 서울, 아산, 대전, 통영, 부산, 광주
1999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서울, 아산
2000년 아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서울, 아산
2001년 아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서울, 아산
2002년 아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서울, 아산
2003년 아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서울, 아산

“당대로 나를 가리키라, 싸움이 한결 급하니 내 죽음을 잊지 마라...”

이순신 장군 순국 400주년(1998)을 기념하기 위하여 탄생한 오페라 이순신은 1997년에 이탈리아의 작곡자 N.Lucolano에 의하여 작곡되어진 후 1998년에 아산 현충사 야외에서 초연되어 1999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도시에서 공연되었다.

이 후 다시 이탈리아 작곡자 G.Mazucca와 N.Samale에 의해 재작곡된 후 2000년 이탈리아 로마(Teatro dell Opera di Roma, Costanzi)와 서울에서 공연되었다. 한편 러시아 작곡자 V.Agafonnikov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오페라 이순신은 2003년 11월 14일 Russia Petersburg Baltic 극장에서 절찬을 받기도 했다.

2004년 합동공연을 준비하며, 러시아 출신의 오페라가수, 러시아 노래가 오페라가수들의 찬양이 된 수준높은 연출로

연출: 백기현(공주대교수, 성곡오페라단장) / 작곡: Anastasios Vlachos(이탈리아 작곡가) / 지휘: Dimitri Balashov(모스크바 소베레나갈 지휘자) / 연출: Alexander Fokker(모스크바에서 연출한 바 있음) / 미술: 최정호 / 조명: 최정호(서울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출) / 무대: 김경호 / 연출: 안. 최 김성호(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출) / 무대: 최정호 / 조명: 최정호 / 연출: 최정호 / 조명: 최정호 / 연출: 최정호 / 조명: 최정호

이순신: Kuznetsov, 김기영 / 박포: Galina Dolz, 박은영 / 원군: Vladimir Shch, 박은영 / 선조: Vitaly Litvin, 김태형 / 최후: Andrei Alexeev, 최정호 / 아사노: Vladimir Koshakov, 최정호 / 유복: Andrei Galanov, 최정호 / 장교: N. Kozlov, 최정호 / 장교: Elena Dolanov, 최정호 / 그외: 공부사, 보원, 원정, 해군, 싸움사, 보원, 원정, 해군, 싸움사, 보원, 원정, 해군, 싸움사

한전아트센터 (공휴일 양재역)
2004년 8월 10일, 11일, 12일 오후 8시
www.operaseongok.com / 공연문의 080-485-6933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 티켓링크 1588-7890 www.ticketlink.co.kr

*본 연구원은 회원친선행사로 공연 티켓을 구매하시는 회원들에게 20%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자 : 임성미 2203-3500(내선 113)

知識情報社會와 不恥下問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지식 정보사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낯설어 보였던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이처럼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정보사회의 미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불치하문은 지식사회 리더십의 요체

평생학습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論語에서 찾아보자. 不恥下問.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말의 탄생 배경이 흥미롭다. 공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孔文子라는 권력가가 있었다. 그는 살아 있을 때에 사람들로 부터 전폭적인 존경을 받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 왕으로부터 받은 시호가 공문자이다. 시호에 글월 文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훌륭한 사람을 뜻한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스승에게 "어떻게 해서 그 분이 과분한 시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여기에 대해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공문자는 재주가 많고 민첩한데도 불구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아랫사람에게 문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文자가 들어간 시호를 받을 수 있었다." 공자는 공문자가 행실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을지라도 불치하문하는 자세를 가장 높게 평가했던 것이다.

공자가 활동하던 시절은 농경사회였다. 지식의 양도 많지 않았다. 경험과 연공서열이 금과옥조처럼 중시되던 시절이기도 했다. 따라서 불치하문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으리라. 오히려 불치하문이란 말은 오늘날 지식정보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요즘의 전문가들은 변화의 속도가 하도 빨라 자신의 전문성을 따라가는 것도 버거운 정도이다. 전문분야를 벗어나면 모르는 것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불치하문하는 태도야말로 지식사회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무기임과 동시에 리더십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경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였다. 상사가 부하를 자신있게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놀고먹어도 고참이 낫다'는 말도 그래서 생겨났을 게다. 그러나 이제 경험의 위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경험은 100% 중요할 수도 있지만 80%, 50%, 30% 정도로 그 중요성은 사안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경험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아는 게 무엇이나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니라' 아는 것은 안다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디지털시대에 모르는 게 있으면 아랫사람들에게 물어보자.

필자 역시 몇 년 전에는 컴맹이었다. 한글 타이핑을 비서와 부하직원들이 다 해주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직접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비서가 퇴근하거나 주말에 혼자서 글을 쓸 때 약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말단 직원에게 컴퓨터 선생님이 되어 줄 것을 진지하게 부탁했다. 하루에 30분 정도 강의를 듣고 감사의 표시로 점심을 사 주면서 한 달 정도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미국유학에 관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는 착실히 유학준비를 하여 지금은 미국으로 건너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부하 직원에게 컴퓨터를 배워서 쓴 책이 2000년도에 발간된 <디지털시대의 리더십>이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컴맹으로 살면서 지식시대를 강조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바꾼 게 내 운명을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나는 그 친구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화세대와 디지털세대는 얼마든지 서로 도우면서 상생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불치하문은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것

불치하문의 자세는 대인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는 차이점을 축하해 주자(Let's celebrate the difference)고 역설한다. 분야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면 서로를 보완할 수 있어서 좋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끼리끼리 문화는 친구로서는 좋지만 보완효과가 부족하다. 누구를 만나든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간단하다. 상대

방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보면 되는 것이다.

사람이란 묘한 게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쓰기를 원한다. 다만 명분을 요구한다. 부자들이 헛돈을 쓰는 경우란 흔치 않다. 아낄 땐 아끼고 쓸 때 쓰는 게 부자의 특성이다. 지식인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시간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진심으로 존경해서 찾아 왔다는 데 거절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저명인사들도 자신의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찾아오면 아무리 바빠도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물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겸손하게 물어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실제로 직원설문 조사에서 부하들이 상사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 중의 하나가 "잘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지."라고 한다. 남녀노소, 지위고하,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든 질문하는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아는 것도 물어볼 수 있다. 상대방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경쟁력은 협조적인 창의성에 의해 결정된다. 창의성이란 의사소통이 자유로울 때 생겨난다. 인간은 희한한 속성이 있다. 자발성이 없으면 동기 부여가 일어나지 않는다. 스스로 좋아서 움직일 때 신바람이 생긴다. 의견이 다를 때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자. 의외로 자신이 보지 못하는 면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리더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바 없다. 쌍방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 일방통행을 하는 리더를 부하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인간이란 합리적인 존재이다. 상사가 합리적이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합리적이다. 반면에 비합리적이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 되는 것이다.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처음엔 합리적인 행동을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방향을 선회하는 능력을 부하들은 가지고 있다. 쌍방통행의 책임은 부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사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불치하문은 변하지 않는 진리

불치하문의 자세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대화란 분위기가 중요하다.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때 '대화'는 '대놓고 화내기'의 준말이 되고 만다.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면 겸손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不恥下問. 공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부하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존경심도 덩어리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人間)

여성 호르몬 - 한 스푼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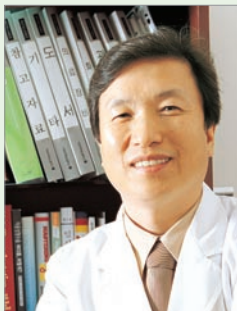
폐경기 여성에게 여성 호르몬 치료는 대체로 유익, 골다공증 여성질환 호르몬 치료로 인한 득과 실 따져보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심혈관계 질환 있거나 암 가족력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

갱년 기 여성들에게 회춘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갱년기 장애와 산부인과 질환, 골다공증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다. 여성 호르몬,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피해야 하는지 또 여성 호르몬 치료의 한계와 부작용을 줄이는 대체 치료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티스푼 하나 양으로 평생 여성의 신체를 지배하는 신비의 호르몬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8년 정도 오래 산다. 술과 담배를 적게 하고 매사 조심하는 여성 특유의 생활습관 덕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다. 난소에서 하루 0.35g씩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은 의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물질이다. 여성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을 지닌다.

첫째 미용효과다. 여성 호르몬은 신체 곳곳에 작용해 여성을 여성답게 만든다. 사춘기 이후 맵시있는 몸매 등 여성의 2차 성징은 모두 여성 호르몬의 작품이다.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을 10년 동안 복용하면 피부가 8년 가량 젊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질이 바로 여성 호르몬이란 찬사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둘째 여성 호르몬은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안면홍조와 질 건조증 같은 폐경증후군과 골다공증에 효과적임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혈관을 보호해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하며 치매와 대장암 예방효과도 입증되고 있다. 흡이라면 유방암 발

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설령 유방암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을 경우 유방암 검진을 더욱 철저히 받게 되므로 유방암으로 숨질 확률은 오히려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최근 미 국립암연구소는 유방암 수술 환자에게 여성 호르몬 요법을 실시한 결과 정상인보다 재발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연구결과까지 내놓았다.

물론 인위적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몸에서 부족한 것을 외부에서 보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여성 호르몬 요법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므로 한 달 평균 2~3만원이면 가능하며 폐경 여성이라면 의사와 상의해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여성 호르몬의 재발견

폐경 여성은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지 않아 안면홍조, 질위축증 등 이른바 폐경증후군에 시달리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골다공증, 심장질환 등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된다. 따라서 외부에서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것이 바로 폐경 여성의 호르몬 요법이다. 폐경기 여성에게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행하게 되면 폐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의 호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과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유병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암에 대한 공포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에서 사용하는 호르몬의 양은 피임약에 비해 아주 소량이므로 피임약과 관련된 부작용과 연결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폐경 여성에게 여성 호르몬 요법이 꼭 필요한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폐경 여성의 심장질환과 골다공증 발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실보다 득이 훨씬 크다는 것으로 유방암 공포가 유별난 서구사회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폐경 이후 여성(유방암환자는 제외)이라면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는 한 여성 호르몬 요법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人間**

편세현 라 끄리닉 드 파리 by 타임필 원장

1997년 美 UCLA AVINE 레이저 센터 연수 / '98 日 oshiro 레이저 클리닉 연수 / '00 벨기에 브리셀 DR. Robert A. Dauvister 성형 클리닉 연수 / '01 이태리 Koca Medislum center 연수 / '02 오스트리아 크루젠트렌 성형센터 연수 / 세계 피부과 학회 정회원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 심부 피부 재생술 연구회 회장

참으로 행복해지려면



사람 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이다. 다만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알면 말이다.

두 마리의 바퀴벌레가 그들이 즐겨 찾는 레스토랑에 찾아가게 되었다. 그 중에 더 힘이 센 바퀴벌레가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 작고 힘이 약한 바퀴벌레가 힘이 센 바퀴벌레에게 자신이 처한 불리한 입장을 이야기했다. “너는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다녀온 그 집 말이야. 너무 깨끗해서 내가 찾자 했던 식사장소를 찾을 수 없었어. 아마 그 집의 주인 아주머니는 청소광(狂)인 것이 틀림없어. 집안에 더러운 것이라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했어. 싱크대, 카운터, 마룻바닥은 물론 집안의 어느 구석진 곳도 마찬가지였어. 너가 가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어느 곳에서 부스리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라고 말이다. 이렇게 작은 바퀴벌레의 레포트를 경청하며 맛있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던 힘센 바퀴벌레는 작은 바퀴벌레에게 짜증스런 표정으로 사나운 시선을 던지며 “내가 맛있게 식사중인데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어?”라고 위엄있게 꾸짖었다. 마음을 더럽혀 놓으면 바퀴벌레와 같은 사탄과 죄의식을 불러들인다.

달라이 라마, 틱 낫한에 이어 금세기 여성불자로서 스승으로 추앙받기 시작한 텐진 빠모가 설산 히말라야의 작은 동굴에서 24년간 수행을 끝내고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라는 ‘마음의 공부’를 직접 써서 화제 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는 “가슴 속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된 곳이다. 여기에서 에너지가 공급된다.”라고 마음의 위대함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하게 하는 무서운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성서는 말한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하고 자기 자신의 창조의 근원인 창조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주의 속성은 진실하고 착하며 아름다우며 전지전능하다고 종교적으로 심취한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다. 부처님도 그러했듯이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할 때 내가 우주적 존재이며,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항장업이 그의 저서에서 인간을 우주 창조의 꽃으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칭송하고 있듯이 자기 자신의 위대한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空心, 또는 佛心の 경지에 이르러 참 자기를 보는 견성의 체험을 했던 것이 아닌가.

바퀴벌레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신성하고 청결한 마음에는 범죄가 싹트거나 성장하지 못한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범죄의 욕망을 일으키는 탐욕스러움으로 지배받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신성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을까.

최근 인간개발연구원은 제24회 밀레니엄 경영자 섬머포럼에 작은 거인 이준구 국제10021클럽 총재를 초청, 그의 특강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은 바 있다. 1956년에 작은 몸으로 미국에 건너간 이 총재(미국명 준 리)는 지난 50년간 태권도 하나로 미국에서 신화를 창조한 거인으로 무하마드 알리를 세계적 복싱 챔피언으로 만들었고, 홍콩의 이소룡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레이건, 부시, 클린턴 등 대통령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은 분이 다. 특히 2003년 6월 28일을 ‘준 리의 날’로 미국의회가 결정한 것은 이 총재의 신화를 잘 말해주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한 유영철의 연쇄살인 사건을 생각해보자. 부자들과 아름다운 여인들에 대한 오해와 증오심이 유영철의 마음을 지배하여 부유한 사람이나 아름다운 여인들은 물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살해하는 희대의 살인마로 그를 추락시켜 버렸다.

유영철과는 판판으로 무엇이 작은 체구의 이 총재를 미국사회의 지도자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며 존경하게 만들었을까. 이 총재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진실할 때 내 마음은 아름다워집니다.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남을 속일 때 내 마음은 추해집니다. 내 마음이 추악해지면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나는 불행해집니다.” 이 총재를 보노라면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 달의 Better People Better World는 이준구 총재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다. **人間**



웃기는 이야기

모두 가 불안하고 근심스런, 어두운 얼굴이다. 거리의 무거운 표정만으로도 지금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다. 활력도 없고 의욕도 떨어졌으니 소비 심리가 살아 날리 없고, 불황의 골은 깊어 갈 수밖에 없다. 경제적 불황에 심리적 불황이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잘 될 것이라는 정부측 해명도 설득력이 없다. 전문가도 쉬 해결책이 안 나오는 모양이다. 정신과 전문의도 이 난국에 가만히 있을 순 없고 해서 좀 웃기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시작 전에 우선 웃어 보자. 웃을 일이 없는 줄 나도 안다. 그래도 웃어 보자는 거다. 거울 앞에 활짝 웃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자. 그래도 안 되면 억지로라도 웃어보자. 웃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잠시 멈추고 웃는 시늉이라도 내보자.

웃으라니? 이 판에 누구 약 올리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좋다. 어이 없는 웃음이 터질 것이다. 자, 어때요? 기분이? 조금 전까지와는 확실히 달라진 느낌이 들 것이다. 어둡고 가라 앉은 대뇌 무드가 갑자기 밝아진 걸 느낄 수 있다. 몸에 활력이 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웃는 표정만 슬쩍 지었을 뿐인데, 그리고 상황이 바뀐 거라곤 아무 것도 없는데.



이시형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왜 이런 변화가 왔을까요? 최근 U.C 샌프란시스코, 폴 애크먼 박사가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 특정 감정 표현을 흉내내면 대뇌와 신체가 거기에 따라 반응한다는 연구 보고다. 웃을 땐 일정한 안면 근육들이 협동하여 웃는 표정을 만들어 낸다.

그 순간, 우리 뇌는 웃음 回路가 반사적으로 활성화되어 진짜 감정과는 관계없이, 웃는 것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연쇄 반응은 수만 년 내려오는 습관성 반응에 기인한다. 전문 용어로는 감정의 末梢 起源說이라 부른다. 감정은 의지로 조절되지 않는다. 슬픈 사람은 누가 뭐래도 슬프다. 아무리 감정을 바꿔 보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나 웃는 행동을 말초에서 함으로서 감정 증추가 조절된다는 것이다. 어려운 이론을 들먹일 것도 없다. 이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실험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웃자는 거다. 아니 그럴수록 더 웃자. 상상도 좋고 억지도 좋다. 아예 멋진 코미디, 유머집 혹은 잘 웃기는 친구와 술 한잔도 좋다. 그래야 '마음의 불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실컷 웃어보자. 그것만으로 기분 좋다. 앤돌핀 분비 만이냐. 밝은 무드는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든다. 이게 젊음과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이다. 웃음은 인간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세일즈는 물론이고 성공과 출세도 웃음 진 얼굴이 큰 몫을 한다는 건 이미 공인된 상식 아닌가.

미국에선 유머 없는 대학 교수는 퇴출이다. 대통령도 기자단을 못 웃기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레이건처럼 특히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잘 웃겨야 한다. 불황일수록 웃음이 더 필요하다. 웃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다. 모두들 웃음에 목말라 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터지게 되어 있는데, 불행히 우리 사회는 그걸 해 줄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처방은 간단하다. 스스로가 자신을 웃기는 수밖에 없다. 그게 불황을 이기고 건강을 지켜 준다. **人間**

가장 가까이 바다와 만나는 곳 - 샤인빌 럭셔리 리조트



서울사무소 135-10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9-23 장석빌딩 4층 TEL 02 322 1500 FAX 02 3443 4206
샤인빌리조트 699-811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16번지 TEL 064 780 7000 FAX 064 780 7007
URL : www.shineville.com

세상이 두쪽이 나도

주말 · 휴일은 가족과 함께리는 당신의 생각이 자동차보험을 바꿨다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말 · 휴일 운전 사고 2배 보상

- 주말, 휴일 자기신체 사고시 가입금액의 2배 보상



대중교통상해도 최고 1억까지

일년 365일,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대중교통 사고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보상.



더 저렴한 보험료

보장은 커졌어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기본보장의 일반 개인용 자동차보험보다 저렴

보험료 비교 예시

A회제 자동차보험: 34세, 가입경력 4년, 할인할증 70%,
2001년식 1500cc 이하, 차량가액 541만원, 부부특약
▶ 3040은 A회제가 제공하는 기본보장에 더해 주말2배,
대중교통상해까지 보장하면서도 - 79,780원이 더 저렴



1588-3040
www.3040.co.kr